

부동산개발자금(PF) 대출 전문은행
동양저축은행
 10821226-0180

光州日報

부자결혼의 꿈은,
이루어진다!!!
 대표이사이사장 임영환
 광주지사 062-228-3222

The Kwangju Ilbo

주택대출 규제·대출금리 인상

‘이자 폭탄’ 터지나

시중銀 0.2~0.8%P 올려...CD금리도 급등
 아파트 금매물 쏟아져...부동산시장 위축

부동산 버블을 우려한 정부의 대출 규제가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으로 불똥이 튀면서 대출 소비자들의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기존 대출자 중 고정금리 대출자는 별 피해가 없지만 변동금리 대출자는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데다 가계 자금 수요가 급한 신규 대출자들은 어쩔 수 없이 고금리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양도성에금증서(CD) 금리마저 급등세를 타면서 이자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대출상환을 포기한 사람들의 아파트 금매물이 나오는데 부동산시장의 경착륙마저 우려되고 있다.

25일 은행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의 부동산대출 규제와 여파로 주요 시중은행들이 일제히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올리고 있다.

국민은행은 최근 영업점장 우대금리를 기존 최대 0.90%포인트에서 0.

70%포인트로 0.20%포인트 낮췄다. 또 분부승인금리를 제한적으로 운영해 할인폭을 추가로 줄였으며, 다음달 3일부터는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방식으로 금리를 0.20%포인트 추가 인상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조만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영업점장 전결권을 고객에 따라 0.20~0.50%포인트 줄이기로 했으며 SC제일은행도 최근 우대금리를 0.50%포인트 가량 폐지했다.

이에 앞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도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각각 0.80%와 0.20%포인트씩 인상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CD금리와 은행측이 부과하는 가산금리를 합해 결정되는데, 정부의 대출규제를 받는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리는 방식을 통해 대출금리를 올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 CD 금리마저 급등세를 보이면서 불안 데 기름을 뿌리는 격

이 되고 있다. 25일 기준 91일물 CD 금리는 연 4.55%로 6월 콜금리 인상 전의 연 4.36%에 비해 0.19%포인트나 급등했으며 지난해 말보다는 0.5% 올랐다.

이에 따라 당분간 가산금리를 올릴 계획이 없는 광주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CD금리 인상분만큼 올라 대출이용자들의 부담이 그만큼 커졌다.

이 은행의 경우 올해 들어서만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1천200억원이나 되는데 1억원을 빌린 고객 기준으로 연간 이자부담이 50만원가량 늘어난 셈이다.

김모씨(여·43·광주시 북구 용봉동)는 “1억5천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안고 새 아파트에 입주했는데 금리가 계속 올라 걱정이 많다”면서 “어렵사리 이룬 내집마련의 꿈을 접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광주지역 국민은행 모 지점장은 “기존 대출자들은 가산금리 인상폭을 제외하고 CD금리 상승폭만 반영돼 그나마 다행이지만 신규 대출자는 이중 금리인상 부담으로 아파트 분양을 꺼려 부동산시장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그대들 있어 6월은 행복했습니다

▶관련기사 5·8·20·22·23면



2006 독일월드컵축구대회에 참가한 아드보카트호의 태극전사 23명이 16강 탈락의 아픔을 묻고 25일 오후 4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석연창은 심판 판정 등 원정 경기의 불리함과 약조건 속에서도 16강 탈락 국가중 최고인 17위에 오르는 등 투혼을 불사하며 선전했다. 태극전사들은 공항에서 700여명의 팬으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공직, 선거 전리품 전략”

논공행상·인사청탁 난무...살생부·줄대기 추태도

5·31 지방선거 후유증으로 광주·전남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선거가 끝나고 오는 7월 1일 민선 4기 출범이 임박하면서 일선 시·군·구에서 논공행상과 인사청탁이 난무하고 있어 공직이 선거의 ‘전리품’으로 전락하고 있다.

더구나 일부 정당 소속 단체의 경우 선거를 도왔다 이유로 정당 관계자가 단체장에게 취임 부탁까지 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25일 광주·전남지역 자치단체 공직자들에 따르면 대부분의 자치단체의 경우 내달 초 당선자가 취임하면 곧바로 인사를 단행할 예정인 가운데

선거기간 공무원들이 보여준 ‘성향’에 따라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 이야기가 파다하다.

특히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후임자 취임 전 현직이 대규모 인사를 단행해 갈등을 빚는가하면 ‘살생부’가 나돌고 공무원들은 당선자와 측근들에게 줄을 대기 위해 일손을 놓다시피 하고 있다.

A군은 현 군수가 낙선하면서 현 군수와 가까운 과장과 계장들이 좌천될 것이라 소문이 공무원들 사이에 퍼져 있다. 실제 총무·재무과장, 행정·사무계장 등 구체적인 직책까지 거론되며 살생부가 당선자에게 전달됐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A군의 경우 2002년 바뀐 군수에게 줄을 서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장 서열 1번인 총무과장이 일선 면장으로 좌천되기도 하는 등 군수가 바뀔 때마다 곱절을 겪었다.

B군의 6급 계장은 선거운동기간 가족이 특정 정당 후보를 도왔다 이유로 당선자 측근들이 “면으로 쫓아 버려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거론해 스트레스를 받아 최근 몸져 눕기도 했다.

C군의 경우 당선자가 당선직후 언론과 가진 인터뷰를 통해 “양지만을 쫓는 사람에 대해서는 포용할 수 없다”고 천명하는 바람에 현 군수에게 ‘충성을 다했던’ 공무원들이 긴장하는 등 군청 내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현 청장과 당선자가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광주 모 구청의 경우 다음달 1일자로 의회 사무국장이 공모연수로 공석이 되면서 당선자와 가장 가까운 인사가 누구인지를 놓고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여기에도 모 정당 광주시당의 관계자는 한 구청장 당선자에게 취업을 부탁했다가 거절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한 구청 공무원은 “하던 일을 그대로 하고 있다”고 밝은 하지만 (보복인사 예상으로)일손이 잡히지 않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오늘밤의 월드컵 (16강)

<27일>

이탈리아	호주
스위스	우크라이나

스코어 보드

스페인	(3승) 1 H 0 (1무2패)	사우디	
우크라이나	(2승1패) 1 H 0 (1무2패)	튀니지	
스위스	(2승1무) 2 G 0 (1승1무1패)	한국	
프랑스	(1승2무) 2 G 0 (3패)	토고	
독일	2	0	스웨덴
아르헨티나	2	1	멕시코

미·일, 北 미사일 발사중지 요구키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은 오는 29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양국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미사일 발사

중지를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 관리들이 24일 밝혔다.

고이즈미 총리와 부시 대통령은 또 북한에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해결할 것과 모든 핵 계획을 포기하고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관리들은 전망했다.

관리들은 두 정상은 이밖에 북핵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양국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말했다.

미·일 양국은 앞서 북한이 대포동-2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 비난 결의안 채택을 요구하기로 합의했다.

/연합뉴스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36년 정보의 메카니즘
 SINCE 1970
 국내 최고의 물가전문지
 綜合物價情報
 http://www.kpi.or.kr

손학규 경기지사 단독 인터뷰 ▶ 3면

www.fy.com

kiss the future, 뉴욕생명

당신의 행복한 미래를 함께 준비할 사람입니다

나를 가족의 동반자로 맞이하는 미래, 가장 먼저 뉴욕생명이 먼저 준비합니다. 다양한 맞춤형 상품과 서비스로 여러분의 소중한 미래를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1. 건강보험료 납부 지원
 2. 건강검진 비용 지원
 3.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4. 건강보험료 납부 지원